사계절 푸르른 양잔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고국 팬들에게 감사" "PGA 톱10을 향하여"

"위성미 기량 놀랄만큼 발전"

골프전문가들 극찬

'달라져도 한참 달라졌다'

SK텔레콤오픈에서 컷을 통과한데 이어 중위권 입상이라는 성과를 낸 위성미의 사흘 동안 플레이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수준급 남자 프로 선수의 기량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금까지 위성미는 어린 여자 선수로서 남자 선수 못지 않은 장타력으로만 주목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대회 때도 그의 장타력은 남자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 충분했다.

최종 라운드 때 9번홀(파4·460야드)에서는 300야드를 날린 뒤 8번 아이언으로 두번째 샷을 때린 사실은 장타력을 입증한 사례. 특히 지난해 프로 전향 이후 집중적인 훈련을 받은 덕인지 이번 대회에서 위성미는 샷의 정확성과 경기 운영 능력, 그리고 쇼트게임과 퍼팅에서 놀랄 만큼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대회 주관 방송 MBC에서 해설을 맡은 문홍식 해설위원은 "아이언샷의 컨트롤이 굉장히 좋아졌다"면서 "원하는 거리를 정확하게 날려보냈는데 이는 풀스윙 뿐 아니라 4분의 3 스윙이나 넉다운샷을 원하는대로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풍이 자주 부는 스카이72골프장의 특성을 감안해 연습을 했다는 넉다운샷에 대해 김종덕(45·나노소울)은 "웬만한 여자 선수는 손목 힘이 약해 저런 샷을 못 친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렇지만 위성미의 기량 향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역시 쇼트게임과 퍼팅이었다.

스코어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쇼트게임에서 위성미는 특히 굴려서 핀에 붙이는 샷에서는 거의 실수가 없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경주 4위·위성미 35위
태국 프롬 14언더파 우승

■ KPGA SK텔레콤오픈 최종

태국의 신예 프롬 미사왓(22)이 위성미(17·나이키골프)와 최경주(36·나이키골프)에 온통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한국프로골프 겸 아시아프로골프 투어 SK텔레콤오픈 정상에 올랐다.

프롬은 7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장 하늘코스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4언더파 202타로 우승컵을 차지했다.

작년 한국프로골프 2부투어 상금왕 이승호(20·투어스테이지)와 아시아투어 상금랭킹 1위 지브 밀카 싱(인도)이 12언더파 204타로 공동 준우승을 차지했다.

작년 대회 우승자 최경주는 7언더파 65타의 불꽃타를 때렸지만 2라운드 때 이븐파에 그친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합계 11언더파 205타로 4위까지 순위를 끌어 올렸다. 위성미는 최종 합계 3언더파 213타로 공동 35위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번 대회로 퍼팅에 대한 자신감 생겼다"

■ 위성미 일문일답

-오늘 경기를 마친 소감은.

▲2번, 3번홀에서 버디를 잡으면서 출발을 좋았는데 이후 바람의 영향으로 4타를 잃었다. 더 열심히 연습해서 샷을 보완해야겠다.

-1, 2라운드 때 비해 투지가 좀 부족해 보였다.

▲그렇지 않다. 샷은 나쁘지 않았는데 경기가 안 풀렸다. 후반에서 부진했던 것은 호흡이 잘 안맞았다.

-컷 통과에 어떤 의미를 두는가.

▲실감이 나지 않을 만큼 기쁘고 좋다. 이번 대회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더 잘하고 싶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음식이다. 한국에 와서 지낸 것이 너무 재미있고 골프장, 음식 다 좋았다. 다음에도 올 기회가 생기면 기쁜 마음으로 오겠다.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게 있다면.

▲퍼팅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언샷은 더 열심히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드라이버도 좀 더 똑바로 보내야겠다. 한국에서 있는 동안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 남자대회에서도 톱10에 들도록 노력하겠다.

"시원한 드라이브 샷 후회없이 보여드렸다"

■ 최경주 일문일답

-대회를 마친 소감은.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았는데 무엇을 보여줄까 생각했다. 역시 시원한 드라이브샷이 좋겠다고 생각해 후회없이 보여 드렸다. 아까운 퍼팅이 있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미국으로 떠날 수 있게 돼 기쁘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2라운드 때 아이언 티샷을 하려는데 갤러리 중 한 분이 '에이, 무슨 아이언이냐'고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드라이버로 치기로 했다.

-15번홀(파4·378야드)에서도 티샷을 그린을 향해 직접 쳤는데.

▲사실 온그린을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그린 앞 30야드 지점은 다른 선수들이 좀체 보내지 않는 곳이라 잔디 상태가 좋아 그 곳을 노린 것이다.

-비가 와서 3라운드가 취소됐는데 아쉽지 않나.

▲아쉽다. 세계적인 수준의 투어 대회에서는 가능하면 4라운드를 모두 치르는 추세다. 대회를 월요일까지 미뤄서라도 72홀 경기로 해야 하는데 여건이 따르지 않아 안타깝다. 어제도 9홀 정도는 소화했어야 한다.